

아주대의료원소식

2003

2

통권 제 97호 / 발행일 2003. 2. 1 / 발행인 겸 편집인 姜信榮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442-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의학 리포트
운동 고혈압, 심장질환 조심!
- 3 선인재 칼럼
너만 바라볼지라
- 4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목숨과 목소리 중 하나만 택하라 한다면?
- 5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따스한 하루
- 6 진료교실 I
지궁경부암
- 8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랑의 인술, 국경을 넘어
- 9 음식 속 건강
식탁에도 복고의 바람을 일으키자!
- 10 인체탐방
우리 몸의 림프계 이야기
- 14 화제의 인물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15 AMC NEWS
- 20 건강 Q&A
- B형 간염
- 척추분리증
- 22 스포츠의학
스노보드, 정말 위험한가?
- 23 진료교실 II
소아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 24 검사실 소개
심초음파 검사실
- 25 잘못된 건강상식
운동 후 물을 마시면 위가 늘어난다?
- 26 협력병원 탐방 안성의료원
- 27 유명인과 질병
모딜리아니 자화상이 견네는 '말없는 대화'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미래 의학의 전당 - 아주의대



2003년 양띠 새해 첫 달부터 아주대학교의료원에는 기쁜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2002년도 전국과의대학 인정평가에서 ▲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부문 ▲ 학생 부문 ▲ 교수 부문 ▲ 시설·설비 부문 ▲ 행정·재정 부문의 5개 모든 영역에서 완전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이러한 훌륭한 교육여건 속에서 육성된 졸업예정자들이 국가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간호학부 100% 전원 합격, 의학부 92% 합격과 간호학부 박정언 학생의 전국 수석 합격이란 결과는 新명문 의대하면 아주의대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심혈을 기울여 우리 나라를 넘어 세계의학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젊은 지성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사와 간호사로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미래의학의 선구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운동 고혈압, 심장질환 조심!

평소 정상 혈압이지만 운동시 유달리 과도한 혈압 상승을 보이는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순환기내과 최병일·장혁재 교수팀에 의하면, 60세 이하 성인 남녀 가운데 운동부하검사 중 과도한 혈압 상승을 보인 35명과 정상 혈압을 보이는 대조군 35명을 서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심전도 검사상 운동 고혈압군은 대조군에 비해 좌심실이 평균 30% 정도 비대하였다고 한다. 또, 임

의적으로 혈관을 자극하여 혈관확장반응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에서도 혈관 확장정도가 대조군은 6.5±0.76%인 반면, 운동 고혈압군은 3.14±0.61%로 운동 고혈압군의 혈관 확장정도가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혈관 내피세포의 혈압조절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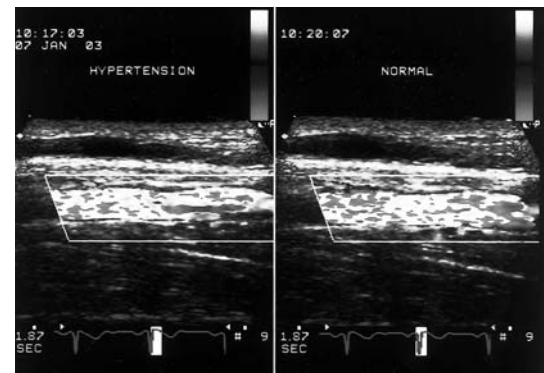
심장 중 혈액을 심장 밖으로 뿜어내는 좌심실의 비대는 심장질환의 발생과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후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는 혈압조절과 심부전 및 동맥경화 등 심장 혈관계질환의 발생에 주원인 인자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운동시 과도한 혈압 상승은 심장질환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로 평가된다.

운동부하검사시(운동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심장 박출량 증가」와 「말초 혈관저항」 때문으로,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은 운동으로 인해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더라도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저하나 손상은 운동시 혈관확장을 둔화시키고, 운동시 증가하는 심박출량에 따라 말초혈관이 확장되지 않아 과도한 혈압상승을 일으킨다.

최병일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소 정상 혈압이더라도 운동을 할 때 과도한 혈압 상승을 보이면 심혈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따라서 평소 건강한 사람들도 흡연, 비만, 고콜레스테롤,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과 같이 운동시 고혈압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조깅·마라톤 등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평소 운동시 혈압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최병일 교수는 조언한다.



▲ 혈관초음파 검사 결과 운동 고혈압의 경우(왼쪽) 정상인(오른쪽)에 비해 「자극에 대한 혈관확장」이 저하된다.



▲ 위 내용은 지난 1월7일 KBS 9시 뉴스와 i-TV 뉴스, YTN 뉴스, 1월8일 MBC 뉴스 투데이에 방영되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너만 바라볼지라

20년 이상의 추억이 살아있는 미국 생활을 접고 아주대의료원으로 발령을 받아 귀국한 것이 어느덧 1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뛰었는지 새삼스레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간은 「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 Northwestern의대 재직 중 아주대학교 발령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 온갖 궁금증이 떠올랐다.

온갖 고생을 해서 자리를 잡은 미국을 떠나야하는 내 망설임을 결정적으로 잠재운 것은 당시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로 내정된 온화한 성품의 이은설 교수님이었고, 아내의 강권도 단단히 한 몫을 했다.

설레임, 기대 그리고 어렸을 때 떠난 고국에 다시 돌아가 적응해야 된다는 두려움 등 많은 것에 갈등하면서 귀국 길에 올랐던 94년 9월, 그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모든 것이 준비 단계인 의료원의 그 때를 생각하면 행복보다는 고생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생이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새로운 동료, 장소, 법, 풍습 등에 적응하느라 힘든 것도 몰랐다.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이 있어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은 나에게 또 하나의 고충은 의료원의 풍족치 못한 물질적인 환경이었다. 컴퓨터는 물론 공간이 부족해 여러 교수들이 연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연구비도 턱없이 부족한 비참한 상황이 었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나에게에는 바라볼 수 있는 기관장들, 동료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어 앞을 보면서 뿜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기대와 관심의 눈초리들이 두려워 나는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으며 바라보던 것을 성취하게 되었다. 아마 그때 나를 바라보는 눈들이 없었다면 아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꿈과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에게에는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우리 나라는 비전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다」고들 한다. 의료원의 현실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많은 동료들이 이곳을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다. 그들은 다른 것에 가치를 두어 정든 의료원을 떠날 수 있었겠지만 나는 다른 상황이었다. 동료들이 한 두명씩 떠날 때마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고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사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동창이 없는 나는 항상 아주대학교가 내 모교였고 내 동료가 동창이었다. 그들이 떠날 때마다 나는 일을 바라보았고 남아있는 보직자들과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오늘이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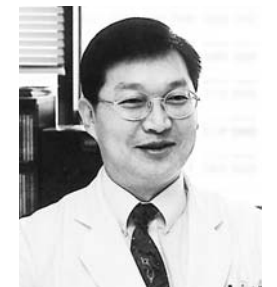
현재 안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방유전체 국책사업에 몰두하면서 격주에 한번씩 주말이면 안성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참석하게 되

었다. 이 교회에서는 폐회 때 복음사가 중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곡을 부른다. 내용인 즉,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

나는 이 복음성가를 들으며 아주대의료원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의료원의 책임자들로서 개개인의 고통, 아픔, 절망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였던가? 직원들은 과연 보직자들을 믿음과 기대로 바라보았던가? 한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는 행동, 언어 등에 많은 주의와 책임을 인식할 것이며 또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아주대의료원은 희망, 꿈, 사랑, 그리고 미래가 있는 의료원으로 발전할 것은 분명하다.

연구 때문에 지역주민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지역사회는 많은 믿음, 고통, 불평을 들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냉랭하고 부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과연 얼마만큼 지역사회를 관심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었던가? 우리가 그들을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2003년은 아주대의료원 식구 모두가 서로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각 부서장들이 관심의 눈으로 부서원들을 바라보고, 부서원들 역시 새로운 눈으로 책임자들을 바라볼 때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의료원이 된다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의료원을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사회를 의식한다면 아주대의료원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날릴 것이다.



조 남 한 교수 / 임상역학센터 소장



목숨과 목소리 중

하나만 택하라 한다면?

수년 전, 한 방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의외여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질문은, 「여성이 남성의 신체에서 느끼는 매력 중 가장 큰 것은?」이었다. 「얼굴일까? 키? 어쩌면 듬직한 체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위는 「목소리」였다. 흔히 「여성은 청각적인 자극에 예민하고,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에 예민하다」는 통념에 부합된다고나 할까, 동화 「인어공주」에서 마녀가 그 많은 매력적인 부분 중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탐한 것도 목소리만큼 인간적이고 누구임을 잘 드러내며 그 어떤 악기소리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목소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면, 정확히 말해서 목숨과 목소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놀랍게도 후두암으로 제거되는 후두로 인한 음성소실로 고민하다가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를 가끔씩 만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두경부암의 치료에 있어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는 달리 종양의 완전제거라는 큰 명제 못지 않게 기능적이고 미용적인 부분에서 치료자와 환자 모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두경부, 즉 얼굴과 목에는 숨쉬고 말하고 듣고 냄새 맡고 음식을 먹고 삼키는 데 중요한 장기가 집중해 있고 머리와 연결되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있으며 생명에 필수적인 장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에 발생하는 암의 치료는 그 장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출되어 있어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심지어는 직업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두경부암의 치료계획은 그 사람의 상태(나이, 직업, 성격, 사회생활환경, 가족, 치료동기 등)에 의해 다르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두경부암의 치료에는 수술 집도의 이외에 치료방사선과, 종양내과, 두경부를 전문으로 하는 진단방사선과와 병리과의 도움이 필요하며 재건을 위해서 성형외과와 치과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외 수술방과 병동의 전문간호사, 언어치료사, 재활치료사, 사회사업가, 종교인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많은 인력이 하나의 팀으로 치료의 결정부터 치료와 재활, 때로는 임종까지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두경부암 치료의 힘든 점이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원에서 진행되는 두경부클리닉과 치료를 계획하고 토의하는 두경부연구회는 이러한 배경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치료적 접근(team approach)을 이루고 여기서 얻어지는 다양한 조직과 자료 등을 기초연구에 응용하여 보다 나은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음성장애」와 관련된 것이다. 음성관련 질환 중 성대마비, 성대구름, 각종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대내의 결손 등은 음성 뿐 아니라 호흡이나 연하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질환으로 발생한 결손부위에 대해 과거에는 주로 자가지방이나 근막 등을 채취하여 이용하거나 gelfoam, teflon, synthetic collagen 등의 인공재료를 이용하여 주입해 왔으나 자가 물질의 경우 공여부위의 상처와 결손이 초래되고 주입 후 주입물이 일정한 용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인공재료인 경우 이물질 반응의 가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가조직의 배양을 통하여 일정한 용적을 유지할 수 있는 성대 주입물을 만드는 것이 나의 연구내용이다. 아직은 개의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채취한 뒤 배양하여 개의 후두에 주입하는 동물실험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보고된 연구가 거의 없어 개발의 의의가 크며 장기간에도 적절한 용적을 유지할 수 있는 성대 주입물을 만들어 실용화된다면 기존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직 많이 부족한 단계이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월드컵 4강의 꿈을 현실화했던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벽찬 감동을 생각하며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옮겨본다.

김 철 호 교수 / 이비인후과학교실



따스한 하루



평소 병원에 대한 생각이 극히 부정적이어서 큰 기대가 없었지만 그 날은 상큼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정함, 의약분업으로 야기되어 환자들을 외면했던 과업, 현실에서 인술이 아니라 기술로 치부되는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극에 달했던 하얀 가운데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 해 12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아이가 독감이 있어 아주대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병원은 온통 독감 환자로 가득 차 있었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 아내와 회사를 잠시 빠져나온 나는 지쳐가고 있었다.

마지막에 처방대로 주사실에 갔더니 독감 환자들이 다 모여 난장판이었고 간호사들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환자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환자가 대부분 아이들인 탓에 보호자들 얼굴엔 짜증으로 덮여 있다. 나 자신도 늘어져 가는 시간 속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주어지는 시선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지친 기색에서 잠시 끊어지듯 들리는 소리는 식사를 못해서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와 환자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대기환자가 많아 큰 일이라는 전언(傳言)이었다.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배고프다는 간호사는 돌아서면 지친 기색이었지만 환자를 보면서 얼굴에 웃음을 유지했다. 땀이 약간 배인 듯, 이마에 광채가 있는 것으로 봐선 화장이 지워지려 해 그 얼굴이 축은하기까지 했다. 다시 내 아이의 상태에 열중하고 있는데, 한 휠체어를 탄 환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자주 들리는지 서로 익숙한 인사와 함께 그 환자의 부모는 아이의 팔을 걸으면서 곤혹스러워 했다. 「저, 이거 어떻게 하지요. 오늘도 죄송해서요」 「괜찮습니다! 00이가 아플텐데..., 어디 불까요?」 「이거 오늘

도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00아, 이제 다 나왔어!」 이내 울어버릴 것 같은 아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간호사는 주사기를 들고 지친 얼굴에서도 아이와 엄마를 위로하고 아이의 팔에 고무밴드를 두르고 애를 썼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짜증스러운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요」 또 그러면서 열중했다.

내 아이의 순서가 다가와 주사를 맞고 있는 아이에게 음료수를 사주느라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니 그 간호사는 땀을 닦으면서 「휴 ~」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나가는 걸음에 내가 그 아이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더니,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병이 위중하여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하며, 혈관을 찾지 못해서 매번 애를 먹고 있는데 주사실 간호사가 항상 배려를 해줘서 아이가 잘 견뎌내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는 긴장이 풀린듯 잠이 들었고 아이의 엄마는 간호사가 점심을 못 먹었다는데 빵이라도 사주어야겠다며 제과점을 향했다.

주차장에 내려와서야 잊은 물건이 있다는 걸 알고 주사실에 다시 갔더니, 전해주는 빵이라 생각되는 물건을 사양하는 모습과 굳이 전하는 실랑이 속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땀이 뺨 이마가 고와 보였다.



박 승 민 님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거주



위의 내용은 박승민님께서 아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ajoumc.or.kr)에 남겨 주신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박승민님께서 칭찬해 주신 주사실 이금주 간호사(사진)는 환자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성실한 근무태도로 환자와 교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자궁경부암...

여성이라면 1년에 1번은 자궁암 검사를 받으세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생활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 또한 개인위생을 청결히 해야한다. 또 무엇보다 자궁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층에서도 발생

흔히 자궁암이라고 부르는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즉, 자궁 입구의 상피세포로부터 발생하는 암으로 여러 종류의 악성종양 중에서도 그 발생기전과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밝혀져 있어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40~50대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암의 전 단계인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이형성상피라고도 함) 및 0기 암은 비교적 젊은 층인 25~40세에서 흔히 발견된다. 현재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은 0기암을 거쳐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HPV) 감염이 주 원인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조기 결혼이나 어린 나이에 첫 성교를 시작한 경우, 출산이 많은 여성이나 문란한 성생활, 흡연과도 관계가 있으며, 성병 감염 경력이 있는 여성에서 증가한다. 최근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의하여 자궁경부암의 발생과정에서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의 감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HPV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여성이 반드시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출혈과 악취가 나면 의심

자궁경부암의 흔한 증상은 주로 월경과 관계없는 질 출혈이나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인데 이 현상은 월경 사이의 출혈, 성교 후 출혈, 배변시 출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담홍색 또는 약간 피가 묻은 형태의 질 분비물이 생길 수도 있다. 암 발생 때문에 자궁경부의 염증이나 궤양이 심해지면 질로부터의 악취를 발산하게 된다. 상기 모든 증상은 단순한 염증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궁경부상피내종양 또는 0기암 등 초기 암의 단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과 소견이 거의 없다는 것이 조기진단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증상이 없어도 자궁암 검사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궁암 검사(질세포진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자궁경부암의 선별 및 진단방법으로써 자궁경부에서 탈락된 상피세포를 채취하여 유리 슬라이드에 도말,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간편하고 비교적 정확한 세포병리학적 검사법이다. 성생활을 하는 모든 여성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질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질세포진 검사의 문제점은 위음성율(자궁경부에 상피내종양이나 암이 있을 경우 검사가 이상 없이 나올 때)과 위양성율(정상인데도 검사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올 때)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위음성율 즉, 자궁경부암 환자가 정상으로 판정될 확률은 약 20% 가량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질세포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위음성율이 훨씬 적어지고 있다.

따라서 질세포진 검사의 검사방법의 한계 때문에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 받았다고 반드시 암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질세포진 검사의 이상은 「뭔가 의심할 정도」 밖에 안 된다. 참고로 자궁에 염증만 있을 경우에도 자궁암 검사는 이상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질세포진에서 이상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는 확실한 진단을 위해(정말 병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조직검사를 해야한다. 현재 조직검사는 질확대경검사라고 하는 검사로 자궁경부를 10~40배 확대하여 관찰과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진행된 암도 같은 방법으로 진단한다.

100% 완치 가능한 자궁경부상피내종양

자궁경부암의 전단계로써 이상세포가 상피층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1기, 2기, 3기의 3단계로 분류하여 자궁경부상피내종양 또는 이형성상피라고 하는데, 전 상피세포층이 미분화된 이상상피로 대치된 경우 상피내암(0기 암)이라고 한다. 1기 상피내종양은 대부분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거나 자연치유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하면서 암 검사를 자주 받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치료를 자궁경부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라고 한다. 실제로 자궁경부상피내종양에서 진단하여 치료할 경우 100% 완치가 가능하다.



자궁경부암의 진행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인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치료로는 전기로 소작하는 방법, 냉동으로 치료하는 요법, 저온응고로 치료하는 방법, 레이저요법, 환상투열요법 등의 여러 가지 국소 파괴술 및 자궁경부 원추형절제술을 주 치료법으로 시행하며, 이들 치료법의 문제점은 약 5%에서 잔류병변이 남거나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발율을 줄이기 위해 중증 이형성이나 상피내암의 경우에는 전(全)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자궁경부암의 진행순서

상피내종양(이형성상피) 1기 → 2기 → 3기 → 0기암(상피내암) → 자궁경부암 1기(미세침윤성암 포함) → 2기 → 3기 → 4기

● 미세침윤성암

상피내암보다 진행된 경우로 암세포가 상피 밖으로 침범한 초기단계의 침윤성암으로, 원추형절제술에 의한 조직검사만으로 알 수 있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병을 발견하여 치료하면 역시 100%에 가까운 치료율을 예측할 수 있다.

● 침윤성암 (상피내암 이상)

만약, 조직검사 결과가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나왔다면 환자는 우선 입원하여 병기결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1~4기 중 어느 것인지). 이것을 병기결정 기초검사라 하며 이 검사의 목적은 암이 퍼진 정도인 병기를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미리 치료 후의 예후를 예측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병기결정 기초검사에는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신우촬영 조영술, 직장 내시경, 방광 내시경 그리고 컴퓨터단층촬영술(CT) 또는 자기공명영상촬영술(MRI)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검사의 결과와 임상적 소견을 종합하여 병기결정을 하게 된다.

● 예 후

완치단계를 5년 생존율로 표현하는데 즉, 치료 후 5년까지 암의 재발 없이 무병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대략 각 기별로 제 1기는 80~90%, 제 2기는 60~80%, 제 3기는 30~40%, 제 4기는 10% 정도이다.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를 받아야 안심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자궁경부암의 고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해야 하며,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예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궁암검사(질세포진 검사)를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발병한 경우이라도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이나 미세침윤암의 상태에서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며 더 이상 진행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인 자궁암 검사를 거의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진국에서는 여성암 중에서 자궁경부암 환자수가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장 기 홍 교수 / 산부인과학교실

사랑의 인술, 국경을 넘어



아 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이 매달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는 훈훈한 미담이 알려지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는 365일 1년내내 병원 최전방에서 응급환자 치료에 바쁘고 힘든 부서로,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응급의료센터 조준필 주임교수는 『응급의료센터 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일찍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수원 천주교 교구와 인연이 되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좋은 일이라는 하지만 함께 할 응급의학과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망설였는데, 모두들 흔쾌히 응해주었고, 봉사가 시작된 후에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이 경기도 광주보건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료봉사를 펼쳐 온 것은 지난해 7월부터로, 매달 둘째주 일요일 의사 3명, 간호사 3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봉사는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휴일을 이용하여 참여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정운석 교수는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로 평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60여명 정도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단순 노동으로 인한 각종 근육통, 관절통이 가장 많고 알레르기, 감기, 위장질환 등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정 수간호사는 『가기 싫다가도 막상 진료를 받기 위해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특히 『진로시 혹은 약을 가져가며 어렵게 한국말로 「고맙다」며 웃어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은 개인 초부터 매년 무의촌·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

으며, 많은 교직원들이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아주대병원이 좋은 연구결과, 첨단 장비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아주대병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작게나마 그들이 필요로 하는 힘이 되어 줄 때 비로서 아주대병원 본연의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효정 / 홍보팀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콩 식탁에도 복고의 바람을 일으키자!

익힌 콩보다 두부, 된장 소화율이 높아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릴 만큼 단백질과 지방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식생활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쌀과 섞어서 혼식용으로 먹는 가장 단순한 방법에서 가공하여 두부·된장·간장·콩가루·콩기름 등으로 만들어 먹는다. 또 콩나물로 길러 먹기도 한다.

여러 콩류 중 대두, 팥콩 등은 지방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은 반면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등은 지방질이 적고 탄수화물이 많다. 콩은 날것으로 먹으면 거의 소화가 안되므로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 조식을 연하게 가공한 것 중 된장이나 두부는 익힌 콩보다 소화율이 훨씬 높아 된장은 80%, 두부는 95%가 소화된다.



다량의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 좋다. 반면, 미네랄의 흡수를 저해하는 것이 단점이다. 콩에는 과일이나 야채보다 몇 배나 많은 칼륨이 들어 있어(1900mg%), 짜게 먹는 한국인에게 좋은 식품이다. 콩은 pH 10.5인 알칼리성 식품이며 각종 비타민 B 및 E, 칼슘, 철분이 풍부하다.

발육기 아동에게 무엇보다 좋은 음식

콩에는 단백질이 4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으며 다른 식물성 단백질에서 부족한 리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 이상이 지방이지만 대부분이 필수지방산이며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레시틴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뇌의 신경세포, 뇌 세포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뇌의 28%가 레시틴 성분임) 발육기 아동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물질이다. 레시틴에 함유되어 있는 콜린은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며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을 다량 함유

아이소플라본은 식품에서는 유일하게 콩에만 존재하는데, 이 중 제니스타인이라는 물질이 항암작용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의 예방 및 억제에 주된 역할을 한다. 또한 에스트로젠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 및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콩의 가공식품 중 순두부에 아이소플라본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청국장과 된장도 상당히 좋은 아이소플라본의 공급원이다. 두유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한 팩당 20mg 정도 들어있다.

한국인에게 더 없는 건강 식품

최근 들어 제6의 영양성분으로 각광받고 있는 섬유소도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담즙산, 발암물질, 중금속 등을 흡착하여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 수분을 강하게 흡착하는 특성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며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당뇨병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비지에는

균형잡힌 섭취가 중요

콩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성분은 서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어느 한 성분에 의한 효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콩으로부터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약으로 먹는 것 보다는 콩 전체를 식품으로써 섭취하는 것이 콩의 장점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다.

단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중년에 과다한 두부섭취가 뇌의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처럼 일반적으로 인체에 좋은 성분들도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때는 역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하다.

가족 건강을 위해 식탁에도 복고풍을

콩의 효능을 요약해보면 ▲ 항암작용 및 골다공증의 예방 ▲ 동맥경화 및 뇌졸중 예방 ▲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방 ▲ 기미 및 노인성 반점(갈색기미) 방지 ▲ 변비의 치료 및 예방 ▲ 비만 방지 등이다.

이처럼 훌륭한 식품인 콩 및 콩제품(된장, 두부 등)들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식탁에서 빵과 고기에 밀려 나고 있다. 어릴 때 길들여진 식성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나의 건강과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이제부터 우리의 식탁에 복고의 바람을 일으켜 보면 어떨까!

강승희 교수 /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아주대학교병원 영양연구회에서 콩, 된장, 두부, 차의 종류와 효능, 아체류와 비타민, 김치와 젓갈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 속 건강」을 연재합니다. 영양연구회는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아주대의대 교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주임교수를 주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 이야기

몸 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어떤 균인지 알아내고 없애는 검문초소 역할의 「림프절」, 림프절들을 이어주는 도로 역할의 「림프관」, 세균과 전투를 벌이는 군인이나 경찰 역할의 「림프구」로 구성되어 있는 림프계에 대해 중앙혈액내과 김재홍 연구 강사로부터 들어본다.



● 우리 몸 속 경찰 - 림프

림프계는 몸 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어떤 균인지 알아내고 없애는 검문초소 역할의 「림프절」, 림프절들을 이어주는 도로 역할의 「림프관」, 세균과 전투를 벌이는 군인이나 경찰 역할의 「림프구」로 구성된다.

● 림프? 임파?

림프는 림프관 속을 흐르면서 혈액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운반,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 등의 작용을 하며, 결국은 정맥혈에 합류된다. 림프관의 군데군데에는 팔알 모양의 크고 작은 림프절들이 흩어져 있다. 우리 몸에는 약 500~1500개의 림프절이 온 몸에 퍼져 있지만, 특히 사타구니, 겨드랑이 밑, 복부, 목, 머리 부위에 많이 모여 있다. 일반적으로 감기 후에 목에서 일시적으로 만

져지는 멍울의 대부분은 감기로 인한 면역반응으로 림프절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를 의사들은 「임파선이 부었다」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감기 후에 발생한 멍울이라도 1~2주 이상 지속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악성 림프종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중앙혈액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임파」는 영어 「lymph(림프)」의 일본식 표기이며 의사들이 「임파」라는 표현을 혼용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 림프구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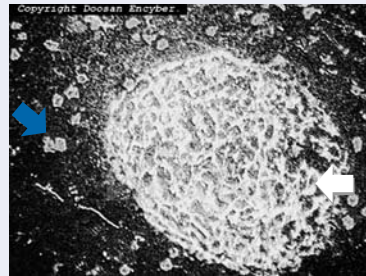
림프구는 항체를 만드는 B세포와 직접 균과 대결하는 T세포가 있다. 림프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바로 「면역결핍증」이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T세포를 파괴해 T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한다. 림프구의 기능 중에 또

T세포? B세포?

면역세포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 하나는 골수 유래의 간세포에서 분화되는 도중에 흉선의 영향을 받은 T세포(T는 흉선, 즉 thymus의 머리글자)이고, 다른 하나는 골수 유래의 B세포(B는 골수, 즉 bone marrow의 머리글자:비 림프구)이다.

T세포와 B세포는 그 표면막의 구조, 생체 내에서의 분포, 여러가지 물리·화학적 처리에 대한 기능 등이 다르다.

T세포 표면은 비교적 평평하고 매끄럽게 보이는 데 비하여 B세포에는 돌기가 많이 나 있다.



▲ 정상적인 림프절
T8림프구로 알려진 백혈구(→)가 부피질에 몰려 있고, B림프구와 림프절의 구성세포인 수상세포(·)가 통상적 망상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이 두 세포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면역 기능이다. 어느 것이나 항원에 대응하여 항체를 생성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면역글로불린, 즉 혈액 속을 흐르는 항체를 만드는 작용을 가지는 것은 B세포이다. B세포가 항체를 만들 때, T세포는 이것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억제하기도 한다. B세포와 T세포는 항체가 생성되는 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암세포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역할이다. 암세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항원제공세포(antigen presenting cells)가 암세포를 처리하여 림프구가 암세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상돌기세포는 인체에 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해 T림프구에 전달해주는 항원 전달세포 가운데 하나로, 체내 면역반응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림프계의 역할은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적을 막아내는 군대의 역할과 함께, 강도나 살인범과 같은 내부의 적들도 막아내는 경찰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우리 몸의 수문장이라 할 수 있다.

● 림프계에서 발생하는 질환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는 림프계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며,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림프절염증, 결핵성 림프절염, 악성림프종, 다른 암의 림프절 전이(전이성 림프절암) 등과 림프액의 흐름이 막혀서 발생하는 림프부종이 있으며 위 질환들의 임상적인 감별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을 위해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림프절염증

림프절염증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감기 후처럼 일시적인 면역반응으로 림프절이 커지면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1~2주 이내에 대부분 호전된다.

▶ 결핵성 림프절염

결핵성 림프절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약 1년간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치유될 수 있으며 진단을 위해서는 림프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 악성림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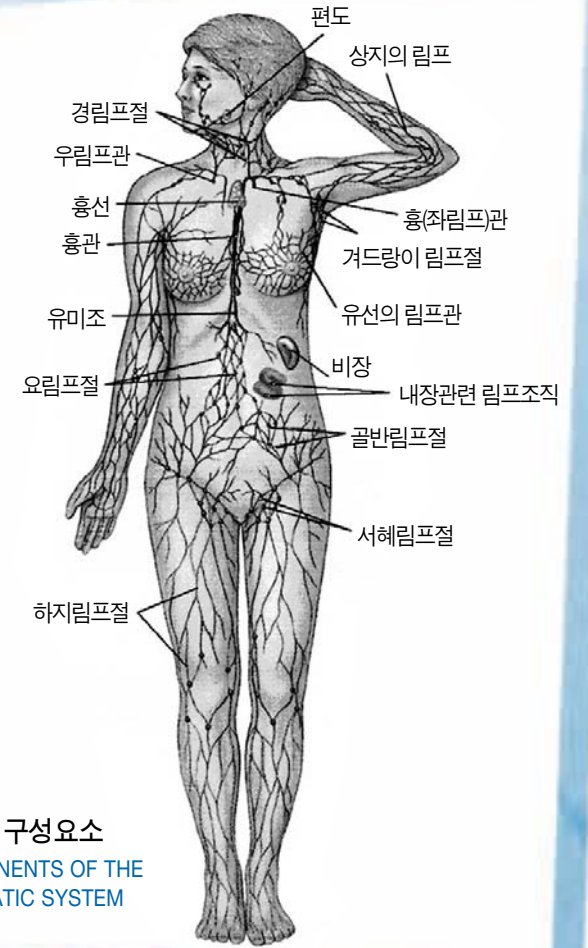
악성림프종은 림프절에 존재하는 림프구에서 기원한 일종의 혈액암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결핵성 림프절염과 마찬가지로 진단을 위해서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일단 진단이 이루어지면 병기 설정을 위한 정밀검사(골수검사, 복부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동위원소촬영)가 이루어지며,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로 되며 최근 림프종 세포 표면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맵테라 등)들이 개발되어 좋은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

▶ 전이성 림프암

전이성 림프암은 여러 암들이 암이 발생한 부위에서부터 다른 부위로 전이할 때 림프선과 림프절을 마치 전이의 이동통로로 이용하



▶ 림프계 구성요소
COMPONENTS OF THE LYMPHATIC SYSTEM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흔히 폐암이나 두경부암 환자에서 목부위 림프절로 암세포가 전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이된 원발부위의 암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림프절에 전이를 일으킨 원발종양을 찾아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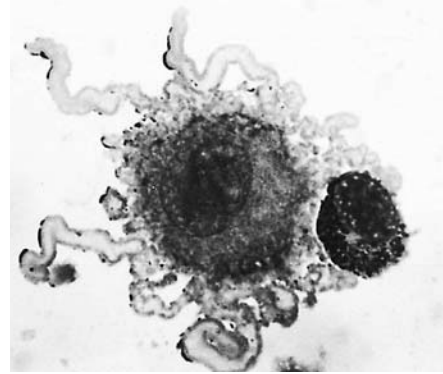
▶ 림프부종

림프부종은 여러 원인으로 림프절이나 림프관이 손상 받아 하수관이 막힌 것처럼 체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그 부위가 부어

오른 것을 말한다. 선천적으로 림프관의 크기가 작고 수가 적거나, 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림프절이 딱딱히 굳을 때 생긴다.

후천적으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환자가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뒤에 팔이나 다리에 잘 생기며 암이 재발할 때도 림프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면 생길 수 있다.

전체 림프부종 환자 중 95%는 여자이며 다리 부종이 60~70%로 가장 많다. 그러나 최근 팔 부종도 늘고 있다. 유방암 환자가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제거한 경우 전체 환자의 22%에서 부종이 생기고 방사선 치료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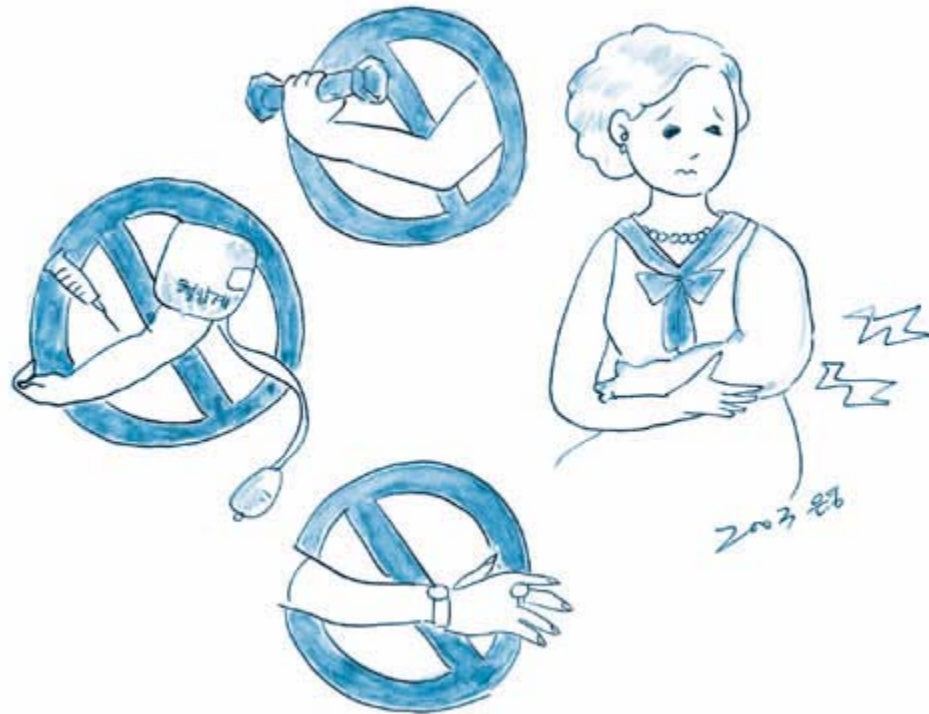
▲ 중앙혈액내과에서 시도하고 있는 수상돌기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상돌기세포.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QnA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은 정맥주위의 림프관과 림프절이 손상 또는 제거되어 팔의 림프액이 심장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 손과 팔이 붓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방암 수술 시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할 경우 또는 수술 후 보조적인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림프부종은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 후 수 십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받은 쪽 팔에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Q 림프부종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 A
1. 수술받은 쪽 팔에서 혈액을 뽑거나 혈압을 재지 않는다.
 2. 수술받은 쪽 팔에 약물주사를 맞지 않는다.
 3. 수술받은 쪽 손이나 팔에 상처나 종창이 생기면 바로 치료한다.
 4. 팔이나 손에 화상을 입지 않는다.
 5. 수술받은 겨드랑이 면도 시에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한다.
 6. 주방일이나 정원일을 할 때는 장갑을 끼어 보호한다.
 7. 수술받은 쪽 손이나 팔에 딱 끼는 옷은 피하고 시계, 반지도 느슨하게 착용한다.
 8. 심한 온도변화를 주는 사우나, 일광욕 등을 피한다.
 9. 수술받은 쪽 팔로 오래 짊고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10. 팔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힘든 운동은 피한다.
 11.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수술받은 쪽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12. 체중 증가를 조심한다.



Q 림프부종의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치료는 크게 증상에 대한 치료와 외과적 치료로 나뉜다.

1. 증상에 대한 치료

- 림프부종이 약한 초기에 보조적인 치료로 시행된다.
- 부종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 손이나 팔이 부으면 부종부위를 탄력붕대로 감아준다.
 - 의사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한다.
 - 마사지 효과를 내는 공기압박 장비를 이용한다.
 - 복합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한다.

2. 외과적 치료

- 림프부종이 진행되어 증상에 대한 치료로 호전되지 않을 때 시행한다.
- 림프부종이 된 피부와 피하조직을 절제한다.
 - 림프관을 연결시키는 수술을 한다.

아직 어떠한 방법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조기에 치료해야 효과적이다. 수술 후 림프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 자료제공 : 유방클리닉 >

투여함으로써 동종골수이식에서와 같은 거부 반응이나 항암치료를 시행할 때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의 중요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이 같은 사실에 착안하여 본원 중앙혈액내과에서는 현재 암 환자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분리한 뒤 특수한 배양조건을 부여해 수상돌기세포를 유도해 냈다. 이 과정에서 배지에 성장촉진인자와 특정 암세포 유전자, 단백질 등을 함께 넣어 수상돌기세포들이 림프구에 암세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림프구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를 시도하고 있어 향후 암치료를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든 수상돌기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받은 환자의 44%에서 림프부종이 생긴다. 림프부종은 손가락으로 피부를 눌렀을 때 속 들어가 원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거나, 림프절 손상 부위가 딱딱해져 피부를 눌러도 들어가지 않거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등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치료는 수면 시에 부종이 있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거나, 마사지 등으로 증세의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수상돌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
암에 대한 방어기전에 있어 림프계의 역할

김재홍 연구강사 / 중앙혈액내과학교실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2003년도 간호국가고시에 아주의대 간호학부 학생 36명이 응시, 전원 합격하는 기쁨을 얻었다. 특히 응시생 11,887명 중 전국 수석을 간호학부 4학년 박정연 학생 (297점)이 차지하는 영광을 얻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있다. 박정연 학생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우선 수석을 축하드립니다. 연초부터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소감은

지난 9월 저녁에 국시원에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합격 사실만을 알려줬다. 다음 날 친구가 상기된 목소리로 『너, 정말 대단하다!』며 전화로 알려줘서야 수석 사실을 알게 됐다. 믿어지지 않아서 대한간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석, 아주대 박정연씨』라는 문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진실로 다가왔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듯 하다가 축하를

그동안 받았던 아주의대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면

아주의대 교육과정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게 해 주실려고 배려하셨다는 것이다. 1학년 과정 중 『간호학 입문 세미나』는 간호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었는데, 보건 교사, 산업간호사,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병원임상실습 이외에도 조산원, 호스피스, 방송국 작가 등 다양한 간호영역을 접할 수 있었던 『선택실습』이란 과정을 통해 간호분야의 시야가 넓어졌다.

예년에 비해 국시일이 한 달 가량 앞당겨져 시험 준비기간이 촉박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요점정리도 잘해 주셨고, 독감이 한창 유행했던 시기와 맞물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셨다. 가족같은 분위기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졸업 후 진로와 향후 계획은

부모님은 교사가 되는 것이 여자인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편안할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교대에 들어가길 원하셨지만 내가 아주대 간호학부를 선택하자 부모님은 『결국, 어릴 때 네 꿈을 이뤘구나』 하시며, 내 결정에 만족해 하셨다.

우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임상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 그런 다음 대학원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평소 아주대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환자를 대하는 것에 감탄했다. 항상 웃으며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졸업 후에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넓은 세상으로 나가 보기로 했다. 모교에 더욱 알차게 쓰여질 사람으로 성장해 다시 돌아오고 싶다.

대학 4년 내내 제대로 여행 한 번 못해 본 것이 후회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우리 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곳들을 여행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이다. 이 여행도 내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단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덕·체를 갖춘 간호사가 되는 것이 내 꿈이다.

오 은 영 / 홍보팀

해줬다.

수석 합격이라는 것만으로 친구들보다 특별히 축하를 더 받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내가 수석 합격한 것보다 함께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간호학부 친구들 전원이 합격했다는 사실이 더욱 기쁘다. 이 자리를 빌어 친구들 모두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이를 계기로 훌륭한 뜻을 가진 후배들이 아주의대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방법에서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또래 친구들처럼 나 또한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학습법에 있어서 남다른 비법은 없고, 선생님들은 내가 성격이 기복이 없이 꾸준하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공부를 강요하는 분들이 아니셨고, 목표를 세우면 그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니까 효과적으로 공부가 된 것 같다.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S

의료원 ▶▶▶▶



오명 총장, [정책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

아주대학교 오명 총장이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제정한 [政策人 大賞(정책인 대상)] 행정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政策人 大賞]은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정책입안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탁월한 업적을 남긴 단체나 개인을 포상함으로써 사회 각계에 정책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또 후학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하고자 지난 2000년에 제정되어 1회 수상자로故 김재익 대통령 수석비서관(경제분야)과 고건 전 서울시장(행정분야)이 선정된 바 있다.

고려대학교 [政策人 大賞] 선정위원회는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오총장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입안과

성공적인 정책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81년부터 88년까지 체신부 장·차관을 역임하면서 낙후된 우리나라 통신산업을 새로운 기술개발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단시간 내 통신 선진국으로 진입시켜 선진화된 우정서비스와 전화서비스를 가능케 했고, 오늘날 IT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데이터통신 주식회사를 발족시켜 시장중심의 정보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통신 연구소와 통신 개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을 발족시켜 정보통신분야의 국내 연구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다.

시상식은 지난 1월15일(오후 3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또한 오명 총장은 지난 20일 제7대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원시초청 간담회 개최

의료원은 1월 16일 김용서 수원시장과 정승우 부시장, 윤흥기 장안구청장, 최원택 권선구청장, 윤태현 팔달구청장 및 수원시 고위간부를 초청하여 수원시와 아주대의료원의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비취원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강신영 아주대 의료원장과 김용서 수원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혜경 권선구보건소장의 「수원시 보건 의료정책 소개」, 소의영 아주대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의 「수원시 협력관련 아주대의료원 보건의료사업 소개」가 있었다.

행사에서 강신영 의료원장은 『교육, 문화,



▲ 수원시 초청 간담회 장면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아주대 의료원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수원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히자, 김용서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어선 수원인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나타내기 위해선 의료문제의 자체 해결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감사패 전달

는 것을 알고 있다』며, 『수원이 한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게끔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은 아주대병원이 지난해 10월부터 광교산 보호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연보호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것과 관련하여 홍창호 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03 도약의 해」 신년 하례식 가져



의료원은 지난 1월2일 2003년 신년 하례식을 오전 8시에 교직원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하례식에서 강신영 의료원장은 의료원 교직원간의 화합을 당부했으며, 의료원발전 후원기금으로 5천3백만원을 기탁한 (주)수원교차로 임직원을 대표하여 황필상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료원은 3층 ICU-A 차태자 간호보조원을 2002년 12월 모범교직원에 선정했다.

총 195표 중 39표를 얻어 20%의 득표율을 보인 차태자 간호보조원은 맡은 바 업무에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고 분별력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사격회, 첫 출범식 가져

의료원 사격회가 지난 1월10일 오후5시20분부터 별관 대강당에서 창단 총회 및 사격 기초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사격회 창단총회에서는 2003년 사격회 운영계획 및 일정을 보고하고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이원진 소장의 「사격 기초설명회」이란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따스한 눈길마다
젖어드는 고객감동

12월 모범교직원 선정

— 3ICU-A 차태자 간호보조원



간호부, 2002학년도 CQI활동 보고회 개최

병원 간호부는 지난 1월15일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CQI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 병동 내 세부업무 지침을 통일시키고 실천을 강화하자(11층 동병동) ▲ 집종치료실 간호사 손씻기 수행도 증진 프로그램 적용 활동보고(3ICU A) ▲ 간호업무 수행방법의 일원화(9층 서병동) ▲ 비처방성 의료소모품 사용량을 줄이자(응급의료센터) ▲ 효과적인 퇴실 침상 정리로 입실환자의 만족도 증진(8층 서병동) ▲ 의료소모품의 비용 절감(수술실) ▲ 정형화된 입원 교육 자료 제공을 통한 환아(보호자)의 입원생활 안내에 대한 만족도 증진(6층 서병동) ▲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마취 내역 등록을 100% 완료한다(회복실) ▲ 미수납 건수를 줄이자(진료비, 처치영역)(외래) ▲ High Flux Dialyzer 재사용과 투석 효율과의 관계(인공신장실) 등 총 10건의 CQI 활동결과가 보고됐다.

심사결과, 수술실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응급의료센터가 2위, 3ICU-A와 8층 서병동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Thank You 2002 행사 개최



아주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2월30일 다산관 로비에서 지난 해를 정리하기 위한 「Thank You 2002」 행사가 개최됐다.

오명 총장을 위시하여 강신영 의무부총장, 홍창호 병원장 등 의료원 교직원 및 본교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칭찬합시다」 캠페인에서 선정된 칭찬 대상자에 대한 선물 증정과 즉석 칭찬하기, 남녀 교직원 각 1명을 추천하여 소원 들어주기 등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의료원에서는 원무팀 최석철, 병원장 비서실 이기임 직원이 칭찬 대상자에 선정되었다.

아주대학교는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위해 「칭찬합시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

의과대학, 전국의학대학인정평가 전영역 완전인정(Full Accreditation) 획득



의과대학은 지난 1월13일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2002년도 전국의학대학 인정평가에서 ▲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부문 ▲ 학생 부문 ▲ 교수 부문 ▲ 시설·설비 부문 ▲ 행정·재정 부문의 5개 모든 영역에서 완전 인정을 받았다.

「아주의대 = 新명문의대」 재확인

의학부, 제67회 국가의사시험 92% 합격
간호학부, 제43회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들이 국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의학부 6학년 38명(재수생 2명)은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경기고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제67회 국가의사면허시험을 치른 결과 재학생 35명이 합격(92%)했다. 전국 평균은 86.6%.

한편, 간호학부 졸업예정자들은 지난 12월15일에 실시된 제4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원 합격했다. 서명선 학생을 비롯한 36명의 졸업예정자들은 1월10일 전원 합격 통보를 받았다(전국 평균 89.8%).

특히 간호학부 4학년 박정언 양이 전국 수석을 차지했으며(관련 인터뷰 기사 참조), 이로써 간호학부는 국내 최고의 의사국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의학부와 함께 新 명문의대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 지난 1월21일 오명 총장은 박정언 학생의 수석 합격을 축하했다.

올해의 과학자 200인으로 선정

—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교수



의과대학 종양혈액내과학교실 최진혁 교수가 영국 케임브리지의 국제인명센터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세계 과학자」 200명 중 한명으로 등재됐다.

최진혁 교수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암 관련 국제 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Cancer」에 2001년, 2002년 연속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위암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는 등 세계 의학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됐다.

최진혁 교수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암 관련 국제 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Cancer」에 2001년, 2002년 연속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위암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는 등 세계 의학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상

— 교학팀 권오일 팀장



의과대학 교학팀 권오일 팀장이 지난 1월 2일 아주대학교 신년 하례식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표창장을 수상했다.

권오일 팀장은 평소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 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이번 표창장을 받게 됐다.

젊음만 가져오십시오.
아주의대가 여러분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연구소 ▶▶▶▶

의과학연구소, 세포생물학 실험기법 워크숍 개최



의과학연구소는 지난 1월19일부터 11일까지 송재관 제5강의실 및 2층 실습실에서 「세포생물학 실험기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의과학연구소 최경숙 교수가 「각종 세포생물학 실험기법 및 세포사멸 유도에 중요한 신호전달 물질들의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

에 대한 실험을 직접 시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들 서로가 실험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며, 다양한 연구분야와 접촉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됐다.

병원 ▶▶▶▶

응급의료센터, 소생장 뱃지 증정식 개최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2월30일 응급의료센터 내 회의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성공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소생 기념뱃지를 증정했다.

이번 증정식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윤상규 외 7명과 응급의료센터 김성희, 이정신, 윤일심, 정민주 간호사가 기

념뱃지를 받았다.

2002년 한해 동안 심장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환자는 125명이었으며, 이중 76명의 환자가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4명의 환자가 후유증 없이 발병 이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한편, 응급의료센터는 2002년도에 가장 근무에 충실했던 베스트 인턴, 베스트 간호사에 이종선 인턴과 권미선 간호사를 선정, 시상식을 함께 가졌다.

혈액투석적정성 - 상위등급받아



병원은 2001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적합률 80% 이상에게 주어지는 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병원은 혈액투석 적절도를 나타내주는 보정적합률에서 85.9%를 나타냈으며, 평가를 받은 43개 종합전문 요양기관 중 우리 병원을 포함하여 3개 기관만이 상위등급을 받았다.

자매부대에 위문품 전달



병원은 1월16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제 2819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으로 흡시어터한 셋트를 전달했다.

이날 홍창호 병원장은 위문품 전달과 함께 부대장병들의 혈소관 공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신입 양충식 부대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을 약속했다.

계미년 새해맞이 음악회 개최

- 레이디스 하모니 합창단

병원은 계미년 2003년을 맞이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지난 1월15일 오후 7시부터 1

진료확인서 발급 업무 원무팀 이관

아주대병원은 진료확인서 발급절차의 전산화를 완료하여 지난 1월15일부터 원무팀 외래 창구(17번)에서 진료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로 인해 아주대 병원은 지금까지 주치의가 발급해 오던 진료확인서를 원무팀 외래 창구에서 직접 발급, 진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 접수를 해야했던 내원객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시간여 동안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5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인 가운데 수원시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레이디스 하모니(Ladies Harmony) 합창단이 god의 「어머님께」, CAN의 「내 생애의 봄날은 간다」, 하와이 민속곡과 율동, 영화 「에비타」의 주제곡 등을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제7차 수술간호 중급과정 수료식 개최

병원 간호부는 지난 12월30일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수술간호 중급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해 10월5일부터 12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된 교육과정을 거쳐 아주대학교병원 권지현 간호사 외 5명과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김재원, 고정아 간호사, 원광대학교 군포병원 김영선 간호사 등 총 9명이 무사히 수료했다. 수료자들은 교육기간 동안 임상과별 수술과정과 해부, 생리, 수술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1월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2.30	경향신문	약리학교실 광병주 교수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1.6	국민일보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운동시 과다 혈압상승 「심장병」 위험
1.7	국민일보	소아과 김문규 교수	조혈모세포 기증...생명을 살립니다
1.8	한겨레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운동시 과다 혈압상승 「심장병」 위험
1.8	경기일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심야의 전쟁터 - 아주대병원 응급실
1.9	경인일보	중앙혈액내과 최진혁 교수	국제인명센터 「올해의 과학자」 등재
1.13	동아일보	피부과 강원형 교수	강원형 교수 피부질환 책 펴내
1.13	경기일보	가정의학과교실	적당한 운동·수면 「노화속도」 줄인다
1.14	중앙일보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소화제 부작용 조심해야
1월호	여성조선	피부과 이은소 교수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많은 희귀병 - 베체트병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1	EBS기획특집	정신과 오은영 교수	아기성장정보고서 - 3부
1.7	KBS1 9시 뉴스 I-TV 뉴스 YTN 뉴스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장혁재 교수	운동시 과다 혈압상승 「심장병」 위험
1.8	MBC 뉴스투데이		

신협 텔레뱅킹 서비스 개시

아주대의료원 신협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이어 1월6일부터 텔레뱅킹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온라인 통장 예금 잔액 조회, 입출금내역 조회, 자금이체, 각종 사고신고, FAX 서비스 등이며,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각종 사고신고는 24시간이다. 조회 및 신청간 이체 서비스는 무료이며, 나머지 서비스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다. 조회 서비스는 온라인 통장을 소유한 조합원은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체 서비스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가능하다.

■ 텔레뱅킹번호 : 국번없이 1566-6000 ■ 자세한 내용은 신협(031-219-4939)으로 문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B형 간염 증 양성은 음식물을 통해 감염이 된다는데...



Q 제 친구가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B형 간염검사를 하면 e항원 검사를 거쳐서 양성이나 음성이나를 구분한다고 들었습니다. e항원 검사에서 양성이면 음식물이나 성생활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음성이면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B형 간염 환자에서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e항원이 양성이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상태이고, 음성이면 증식하지 않는 상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증식하고 있는지는 혈액 내에서 간염 바이러스의 DNA를 측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e항원이 음성이면서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검출되는 경우(precore 변이형 바이러스)도 발견되어 e항원이 음성이라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e항원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본인의 경우 B형 간염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B형 간염은 음식물로는 거의 전달이 안됩니다. 환자의 타액에 간염 바이러스가 분비되지만 수적으로 매우 적으며, 위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나 키스의 경우 구강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경우 타액에 비해 바이러스의 수가 많고, 상처받은 점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지요. 이는 성행위에 의해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소화기내과 이기명 교수〉
소화기내과 외래 031-219-5976

척추 분리증은 선천적인 것인가요?

Q 얼마 전 척추 분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 분리증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뼈에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 동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인지 앞이 캄캄합니다.



A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발생되기도 하며 후천적으로 10대 때나 젊을 때 요추부에 적은 충격과 무리가 축적되면서 피로골절이 오기도 합니다. 이 병이 발견되었다고 앞이 캄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평생 모르고 지나는 분도 있고 요통이 간헐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지속적인 요추근육 강화운동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매우 심하고 약이나 물리치료로도 호전이 없는 경우, 혹은 요추체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어 다리 저림이나 다리 팽김증 혹은 파행증 등과 같은 신경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의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술이 잘 되면 아주 예후는 좋습니다.

〈신경외과 조기홍 교수〉

신경외과 외래 031-219-5664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건강 Q & A / 잘못된 의학상식**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 · 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2-721)
 • 이메일 apr@ajou.ac.kr



스노보드, 정말 위험한가?

자유와 파격의 상징처럼 등장한 스노보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최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스노보드의 부상과 관련한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스노보드는 정말 위험한가?

스노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안전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 스노보드의 짧고 빠른 턴이 슬로프 여기 저기 패이게 만들어서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스키장이 스노보드를 금지했었다. 그러나 스노보드 장비의 발달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타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스키장들은 더이상 모른척 할수 없게 되었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에어(공중동작)를 즐기는 프리 스타일 애호가를 위하여 하프파이프(U자형 큰 눈구덩이)나 레일(쇠난간), 램프(점프를 위한 작은 눈둔덕) 등이 설치된 스노보드 전용파크를 꾸며 놓은 스키장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국내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램프가 많아서 점프후 착지할 지점에 경사가 적으므로 자연산에 비해 착지시에 다칠 확률이 높다.

스노보드의 부상 비율은 실제 1,000명 당 약 3~5명 정도로 스키와 대동소이하므로 유난히 더 위험한 스포츠라는 것은 선입견이다. 그 중 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상은 스키가 19%인데 비하여 오히려 스노보드는 4%로 낮게 보고되어 있다.

어디를 잘 다치나?

가장 흔한 세가지 부상은 ① 관절을 빼는 것 ② 골절 ③ 타박상이다. 상지에서는 손목, 팔꿈치, 어깨를 잘 다치며 엄지 손가락 부상은 적다. 하지에서는 발목이나 정강이뼈(경골)를 자주 다치며 무릎관절의 부상은 적다. 오른손잡이는 보드에서 앞에 놓게 되는 왼발의 부상이 많고, 반대로 오른발을 앞에 놓는(구피 스타일) 왼손잡이는 오른발의 부상이 많다.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넘어지거나 혹은 에어를 하던 중 보드로 착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 이때 팔을 뻗어 짚게 되면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 곳이 손목이다. 팔꿈치나 어깨를 다치기도 한다. 다행히 엄지 부상이 적은 까닭은 스노보드는 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상의 원인 중 펠레야 펠수 없는 한가지 큰 부분은 장비이다.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프리스타일 스노보드는 대개 소프트(부드러운) 부츠를 착용하는데, 이는 발목의 움직임을 더 좋게 하는 대신에 보드에서 전달되는 충격이 발목과 정강이뼈에 직접적으로 전해져서 부상으로 이어



지게 된다. 반면에 알파인에 사용하는 하드(딱딱한) 부츠는 발목쪽은 보호가 되지만 대신에 무릎부상이 많아지는 양면성이 있다. 최근에는 바닥쪽은 딱딱하면서 위는 부드러운 가죽이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혼성) 부츠가 나왔다.



그외에도 세계 엉덩방아 쪼을 때 꼬리뼈를 잘 다치며, 앞으로 넘어질 때에는 치아도 잘 부러진다. 드물게는 배, 가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부상을 줄일 수 있을까?

주로 다치는 상황은 추락과 충돌이다. 특히 컨트롤이 미숙한 초보자 때 부상이 많다. 철저히 장비와 보호대를 준비하고 기술수준에 맞는 슬로프에서 선택하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무리한 동작을 서두르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호장비로는 장갑, 헬멧, 손목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엉덩이 보호대 등이 있다. 다친 부위가 부어오를 때에는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고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스노보드는 유연성과 조정력 때로는 과격함과 스타일이 어우러진 멋진 겨울 스포츠다. 짜릿함과 안전함을 적절하게 즐기길 바란다. 끝으로 도움 말씀을 주신 마취통증의학과 민상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김 현 정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소아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 알레르기는 3세 미만 소아의 약 8%에서, 성인의 약 2%에서 한번쯤 앓게 된다. 식품 알레르기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몸이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소아와 영유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장점막의 미숙, 장 점막의 면역 특히 분비형 IgA 항체 생성의 미숙, 장효소의 미숙 등 때문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0%가 식품 알레르기가 원인

소아나 영유아들이 많이 앓고 있는 ▲ 아토피성 피부염 ▲ 기관지 천식 ▲ 급성 알레르기성 위염 및 장염 ▲ 급성 두드러기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이중 흔히 「태열」로 알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병원을 찾는 소아의 40%가 식품 알레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잘 일으키는 식품은 한정되어 있다. 영아에서는 우유, 달걀, 대두, 땅콩 등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밀가루, 생선, 어패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음식물

이중 아토피성 피부염을 잘 일으키는 식품은 한정되어 있다. 영아에서는 우유, 달걀, 대두, 땅콩 등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밀가루, 생선, 어패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등도 이상의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호소하는 영유아의 경우 주로 우유, 달걀, 대두, 땅콩 등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한다.

우선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알아야

식품 알레르기 검사는 우선 알레르기 피부시험이나 혈청내 식품항원 특이 IgE 항체를 측정한다.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확실한 원인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식품제거시험과 유발시험을 시행한다.

모유수유와 원인 식품을 뺀 식이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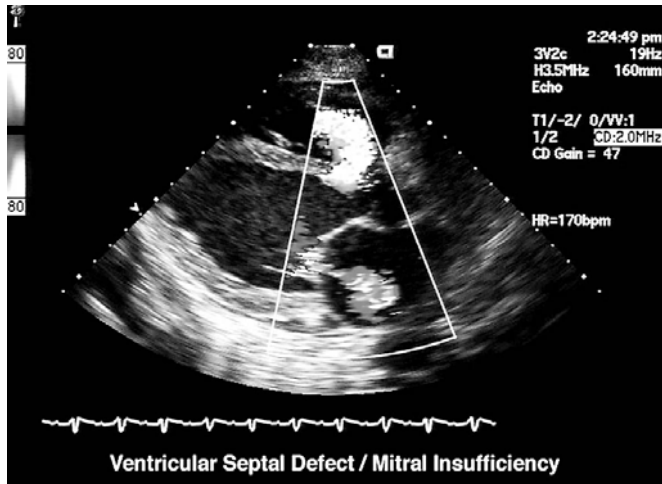
일단 확실한 원인식품이 밝혀지면 그 원인식품을 2~3년간 식이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원인식품을 찾아 식이에서 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영양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식이에서 뺀 식품의 영양소를 대체할 또 다른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경향이 강하므로 예방을 위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부모에서 태어난 영아는 모유 수유를 반드시 권해야 하며, 이유식 섭취를 늦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수 영 교수 / 소아과학교실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성, 최신 초음파기를 갖춘 국내 최고의

심초음파 검사실



▲ 초음파 검사 상의 심실중격결손



아 주대병원 심초음파 검사실은 인력, 장비의 보강과 함께 지난 해 12월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를 통해 심장 초음파 검사실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흉부 초음파 검사 이외에도 심장 초음파 검사실에서는 환자의 치료에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특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 경식도 심초음파
- ▲ 조영(contrast) 심초음파
- ▲ 부하 심초음파
- ▲ 관상동맥 심초음파
- ▲ 상원동맥 심초음파(내피세포 기능 측정)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수축기 및 이완기 기능, 심장 판막, 심장, 심벽, 심낭의 구조적, 기능적 평가를 통해 모든 심장 질환의 진단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검사로 대부분의 심장 질환에서 확진, 수술을 포함한 치료방법과 시기의 결정, 예후를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여타 심장 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검사에 비해 환자의 상태, 검사자의 숙련도와 초음파 장비에 의해 정확성이 많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본원의 심장초음파 검사실은 많은 발전을 통해 규모나 실적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실로 발돋움 하였다. 또한 최근 숙련된 검사 인력의 보강과 함께 Acuson사의 최신형 초음파 장비인

Sequoia C256 기종 3대를 신규 도입하여 검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Sequoia C256은 기존의 심초음파 장비와 달리 초음파 신호에 포함된 진폭(amplitude)과 상(phase) 신호 모두를 이미지 구성 정보로 이용함에 따라 타 기종과 차별화 되는 탁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아과 정조원 교수님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기존에 성인과 함께 운영되어 왔던 소아 심초음파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아주대병원 전체의 PACS 도입과 맞물려 심혈관계 영상의 통합운영이 가능한 Cardiac PACS가 도입될 예정으로 DICOM 신호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신규 도입장비의 Computer Processing이 뒷받침 되면 예전의 단순 저장 기능이 아니라 영상 정보의 저장, 출력, 변환, 비교 등이 가능하며 나아가 타 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교환이 기대된다.

장혁재 교수 / 순환기내과학교실

운동 후 물을 마시면 위가 늘어난다?



적절한 수분공급은 건강에 필수요건

운동 후 갈증을 느끼면 물을 먹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는데, 이 때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 갈증은 수분이 부족함을 알려주는 우리 몸의 신호기전이며, 만일 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운동 후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탈수에 빠지게 된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수분공급은 건강에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위는 고무풍선이 아니다

소화기 장기인 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주는 가죽 주머니로 만든 뱃돌과 같다. 그러므로 음식이나 물을 먹었다고 위가 고무풍선처럼 쉽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 첫째는 위 운동이 마비 되어 뱃돌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다. 급성 바이러스감염, 약물, 자율신경계 질환(예, 당뇨병의 합병증) 등이 위 운동을 마비시켜 위가 음식물로 가득 차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

혀 위가 늘어날 수 있다. 뱃돌은 잘 돌아가나 내려가는 구멍이 막힌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런 원인은 위의 하부 또는 십이지장 상부에 궤양, 종양 등의 병변이 있다.

운동 후 수분공급엔 물이 더 좋아

일반적으로 운동 후 많이 마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운동음료는 우리 몸의 땀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운동 후 흘린 땀과 동일한 성분의 수분을 공급하고자 해서 고안한 것이다. 이런 운동음료는 마라톤과 같은 심한 운동으로 땀을 매우 많이 흘린 경우에만 필요하며, 그 외 운동 후에는 일반 물을 마시면 된다.

당도가 높은 주스나 청량음료는 수분공급에는 부적절하나 다량의 수분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관하다.

앞으로는 운동 후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충분히 마셔 올바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겠다.

황일란 교수 / 소화기내과학교실

안성의료원

공공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안성의료원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사 경기도 안성의료원(원장 : 김용성)은 1936년도에 안성지역의 유지들이 독지기부금을 납부하여 설립됐다. 이후 도립병원으로 발족하여 운영해 오다가 1981년도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번지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1983년도에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운영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응급실 운영과 최신 의료장비 확보

안성의료원은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갖추고 15개의 진료과와 최첨단 의료장비인 C.T, 체외충격파 쇄석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자동화학 분석기, 끝밀도 측정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진단과 사업장 건강진단을 위하여 검진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최신형 C.T 및 초음파 영상진단기, 임퓨전 펌프, 센츨렐 모니터, PACS 등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병동 운영

또한 저소득층 및 무의탁 노인의 진료를 위하여 4층 입원실에 노인 전문병동을 개설하여 치매환자, 중풍환자, 기타 노인성 질환자를 전담 진료하고 있다.

입원이나 통원이 어려운 무의탁환자, 재택환자를 위해 가정방문간호사가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와의 협진 체계 운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안성의료원은 2002년 2월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의학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의료진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욱 신뢰 받는 병원으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지역특성 및 향후 전망

안성지역은 수도권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 경관이 잘 어우러진 전원도시로 주거 지역으로 적합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퇴직자들이 모이고 있는 곳이며 근간에는 아파트 건립이 한창 붐을 이루고 있다.

평택항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중소규모 공업단지 및 물류기지의 증가, 도로 교통망의 확장 등 수도권 성장 관리 권역으로 급속한 인구증가 및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안성의료원은 제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좀더 현대화된

김 영 배 팀장 / Q/팀



모딜리아니 자화상이 건네는 ‘말 없는 대화’

반세기 전의 우리 문화계를 스के치한 책 「1950년대」에서 작가 고은은 『시를 쓰려면 먼저 가슴을 앓고 깊은 밤에 청동을 침통하게 울리는 기침소리를 하고 피를 토해야 했을 만큼 당시 폐결핵과 문학은 불가분의 관계였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세기 초 서양의 문학예술계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곳곳에서 결핵은 창작의 소재가 되기도, 예술가의 삶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일찌감치 서른여섯 살의 삶을 마감한 화가 아마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가 있다.



▲ 자화상 (모딜리아니, 1919년작)

1884년 이탈리아의 항구도시 리보르노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으며 흉막염과 폐결핵으로 학교마저 그만두었다. 17살에 재발한 결핵의 치료차 요양한 후 그는 이태리 각지의 미술관을 여행하며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06년 파리로 나와 몽마르트르를 거처로 삼으면서 그의 예술은 진정한 성장을 하게 된다. 피카소가 「위대한 창조자의 시대」라고 말했던 20세기 초의 파리는 예술적 교감의 황금기였다. 젊고 잘생긴 그의 외모 덕에 몇 여자들이 따랐고 스스로 옷을 벗어 누드모델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무일푼에 그림마저 팔리지 않아 하숙집에서 쫓겨나 기 일수였던 현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한때 조각에 열중하였으나 폐결핵을 앓는 그에게 고된 조각은 무리일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단념하고, 1913년부터는 몽파르나스에 거처를 정해 그만의 독특한 개성이 담긴 초상화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평소 모델과의 심리적인 교감을 중시했던 그였기에 초상화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인과 화가들이었다. 이 무렵 화가와 모델로 만나 사랑을 키워던 애인 잔느 에뷰테른(Jeanne Hebuterne)은 「얼굴이 길어 슬픈 여인」이라는 그만의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이런 그의 초상화에 대해 친구 장 록토는 『얼굴을 길쭉하게 늘어 놓기도 하고, 불균형을 강조하기도 하고, 눈을 도려내기도 하고, 목을 길게 늘어 놓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것이 그의 눈과 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의 대상은 말없는 대화인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렇지만 파리의 카페를 전전하며 데상을 단돈 5프랑에 팔았어야 했을

만큼 그의 작품은 과소평가되었다. 파리의 닭 한 마리가 10프랑 하던 시절, 밥값 대신 그림을 받은 음식점 주인이 화가 나서 그림에 국수 가락을 내던 찌다는 일화가 있기도 하다.

1919년 악화된 폐결핵의 요양을 위해 머물던 니스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왔으나 영양상태는 엉망인데다가 방탕한 생활은 그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임종 즈음에 끊임없이 피 섞인 기침을 해대던 그는 결국 1920년 자선병원에서 삶을 마감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잔느 역시 만삭의 몸을 6층

창 밖으로 던져 최후를 함께 했다. 비참했던 그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장례식은 무척이나 화려했으며 파리의 모든 유명 화가들이 꽃에 파묻힌 관이 실린 영구차를 따랐다.

그의 자화상은 죽음을 불과 1년 앞둔 1919년에 그려진 것이다. 길고 가늘게 묘사된 그의 얼굴에서 보이는 창백함과 무표정한 모습은 아마도 전생애에 걸쳐 그를 괴롭히고 있던 결핵 때문이 아니었을까? 움푹 패인 볼과 다문 입술이 「말없는 대화」를 건네는 이 그림은 결국 애당초 화가 자신이 의도했던 안했건 간에 「모딜리아니의 자화상」임과 동시에 「결핵의 자화상」으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신 승 수 연구강사 / 호흡기내과학교실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39명	567,903,201원	587,310,201원
누계	233명	812,926,201원	613,761,20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고제상	500,000	구매관리팀	안교준	300,000	시설관리팀
김경민	1,000,000	미생물학교실	안현남	1,100,000	산업의학과
김승권	600,000	기획팀	유기원	1,000,000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연	240,000	시설관리팀	유재중	500,000	기획팀
김용각	300,000	시설관리팀	윤계순	2,000,000	생화학교실 교수
김의섭	500,000	기획팀	이기범	1,200,000	병리과 교수
김정호	1,000,000	원무팀	이기임	500,000	총무팀
김형선	1,000,000	교육수련부	이수환	2,000,000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형성	300,000	시설관리팀	이위교	3,000,000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효정	1,000,000	교외후원자	임영애	2,000,000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흥기	600,000	시설관리팀	정윤석	2,000,000	응급의학과 교수
나현자	500,000	간호부	조준필	2,500,000	응급의학과 교수
박상신	300,000	교육수련부	조혜성	2,000,000	생화학교실 교수
박상용	240,000	시설관리팀	주인수	2,000,000	신경과 교수
박 선	1,000,000	미생물학교실	최 식	400,000	시설관리팀
박종선	300,000	시설관리팀	황교승	2,000,000	순환기내과 교수
박지선	300,000	교육수련부	○○○	240,000	
서기춘	1,000,000	병리과			
서대원	1,000,000	교외 후원자			
㈜수원교차로 임직원	529,243,201				
신미정	500,000	기획팀			
신옥현	1,000,000	진단검사의학과			

(가나다순)
2002.12.27~2003.1.17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주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5752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수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목	화, 목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강준규		토		폐·심장외과	
정형외 과 5545	강신영	5544		월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김병석	5818	금*	월, 금	팔 및 연부조직 종양외과, 골대사질환, 유전질환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화, 수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소아 정형외과	
	일반진료	5542	금, 토	화, 수, 목	*는 관절염센터 진료	
신경외 과 5664	조경기	5661	월, 목	수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목	월, 목	척추질환, 외상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안영환	5662	수, 금	수	뇌정위기능, 신경통증, 방사선 수술	
	신용삼	5663	수, 토	금	뇌혈관질환	
성형외 과 5614	박명철	5611	월, 수, 금	월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해외연수중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토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토	월-금		
산부인 과 5597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월, 화, 목	화, 금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제 환함)	
	장기홍	5594	월, 수, 금	화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화, 수, 목	월,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제 환함)	
	황경주	5643	해외연수중		불임 및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월, 수, 금	불임, 산과, 부인과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유호민	5669	월, 수, 금	화(예약), 목(예약)	망막, 조차체, 백내장	
안과 5673	안재홍	5670	월, 수		각막, 녹내장, 예시비·라식수술	
	장윤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문상호	5671	화, 토	금	외안부,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금		
이비인 후과 5747	박기현	5742	월, 금	수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 목	화(난청클리닉),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정연훈	5744	월, 토	월, 화(어지럼증), 목	난청, 어지럼증, 귀·두개저·부비동·구강종양	
	김철호	5744	수, 토	월, 수(음성클리닉)	두경부 종양, 기관식도 질환, 비염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주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5585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	
일반진료		토	월-금			
재활 의학과 5802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일반진료		화	목			
치방사 과 5884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양(부인암,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혈액 내과 5939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혈액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장외 과 5644 5606	이경중	5645		화, 금	직접성 질환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가정 의학과 5959	김광민	5957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새별	5957	화, 금	월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8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정현주	5958	휴진		비만, 갱년기	
	손중천	5958	화, 토	수, 목	갱년기, 금연	
일반진료		월, 목, 토	월-금		★	
치과 5869	황병남	5869	월, 화*, 목*, 금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백광우	5869	화*, 수, 목*, 금	화, 목	소아치과, 무통치과클리닉	
	고석민	5869	월*, 목	월, 수, 목*,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이정근	5869	해외연수중		악안면외상, 악안면기형(주걱턱)	
	이승훈	5869	화*, 금*	월, 화, 수, 금	치열 및 악안면기형 교정	
일반진료		월-토	월-금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교수가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명 주소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과 6001	조준필	6005	월, 수	화	수	외상, 응급의료전달체계	
	정운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기타응급질환	
	이국종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는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원 → 아주대 입구 (한빛은행) → 세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
 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